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학의 향기

디자인 세상

파라다 병명

의병보다 의무병이 필요해



이기호

'촛불 장난을 오래하면 불에 덴다'라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의학상식을 일깨워 주셨다.

최고의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 정국에 잊지도 않고 또 그 분께서 오셨다. 그 분께선 '촛불 장난을 오래하면 불에 덴다'라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의학상식을 일깨워 주셨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용준



현대인은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다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독일 예나대학의 솔츠박사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감신경계우위의 긴장상태가 질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자기최면을 이용한 이완법을 개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독일에서는 보혈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로하스와 대체의학

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몸의 구성구성이 긴장하고 굳어지면서, 슬데없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어 가기 때문이다.

면법하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천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웃음이 스트레스의 방파제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기고

김한호



연일 계속되는 촛불 시위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작된 청소년 촛불 문화제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봉화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급기야는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일과파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이 많다. 그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이다.

청소년 문화와 촛불 집회

기 위해 청와대 수석과 장관 등 참모진을 개편하고, 대운하 사업 등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인 평등과·확실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촛불 시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시설

초고유가시대 외면하는 지자체 관용차

광주·전남 지자체의 고유가 '불감증'이 심각하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국가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데도 지역 지자체는 여전히 대형 관용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광주시의 경우 연료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3대에 불과하고 전남도는 단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 경제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의 기초를 다져 수정했다. 성장에 대한 미련을 접고 물가와 민생 안정에 전력기로 했다.

경제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물가부터 잡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의 생활은 나아질 수 없다.

無等鼓

용병(傭兵·mercenary)의 역사는 매우 길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때부터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에서 군인들을 증원하면서 용병이 생겨났다.

진을 밝혔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통산 89승으로 지난 1998년 국내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국 무대를 밟았던 투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는 리마는 겨우 3승 6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KIA에서 떠났다.

용병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

신용카드 결제 거부 고시원 강력 단속해야

동생이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형으로써 가끔 고시원 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다보니 고시원도 덩달아 붐빈다.

바로 잡아야 할 불법·무질서가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주차전쟁 부른다

택가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장도 양산된다.

그럼에도 건물주차장 용도변경은 근절되지 않고 고질병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준법익이 결여된 건물주의 부도덕한 양심이 자리한다.